

'울 중흥조' 자운 스님 업적 되짚어

'근대한국불교 율종진작과 자운대율사' 심포지엄

불교계 대표적인 율사 자운 스님(1911~1992)에게는 '근대한국불교의 울(律) 중흥조'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억척책에 위촉되고, 일제 식민통치기에 일본 불교의 침탈을 받으며 뿌리가 흔들리던 율의 전통을 크게 진작했기 때문이다.

자운율사의 뜻을 기리고, 업적을 조명하기 위한 특별심포지엄 '근대한국불교 율종진작과 자운대율사'가 자운문도회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의 공동주최로 10월 15일 서울 경국사에서 처음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인한 스님(前 동국대 교수), 철우 스님(파계사 영산율원율주), 묘연 스님(명성사승가대 학장) 등 내로라하는 율사들과 종단 중진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지관 스님, 종진 스님(해인총림 율주), 혜충 스님(부산 감로사 주지), 법혜 스님(동국대 교수), 무관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 태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자운 스님의 업적을 정리·발표했다. 발표 내용의 요지를 주제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자운율사의 계맥을 이은 지관 스님이 심포지엄에서 기조발문을 하고 있다.

●**계율종통 통한 교단정화와 승가회합**
구한말 이후 승가의 기강은 무너지고 일본불교에 의한 침탈과 타락이 심각했다. 이때 자운 스님은 교단을 정화하고 종풍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운영권과 종단의 재산 회복보다도 '계율수지'라고 봤다.

이를 위해 스님은 1948년 문경 봉암사에서 처음으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열고, 1953년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첫 비구계 수계법회를 가진으로써 청정승가회합의 기틀을 다졌다.

동산·효봉·성철·청담·경산 스님 등과 더불어 교단 정화운동을 주도한 자운 스님은 1954년 전국승가대표자대회에 참석해 교단정화의 방향과 노선을 정하고 본격적인 정화운동에 동참했다. 정화 과정에서 승가 회합이 위태로울 때는 더욱 계율 엄수를 강조했다.

'동일갈마(同一羯磨) 동일설계(同一說戒)' 즉 계내(界內) 전 비구가 모인 여법한 회합의 결의, 그리고 전원이 참석한 여법한 포살의식이야말로 승가의 회합이라는 율장의 가르침대로 자운 스님은 율장을 충포하고 계율을 강설하고, 율사를 양성함으로써 궁극적인 승가의 회합을 도모했다.

계율종포 차원에서 스님은 1951년에 한문본 <법망경> <사미니율의> <비구계본> <비구니계본> 등 5종의 율서를 2만5000

권 간행했고, 이후 우리말 번역본 4만8000권을 간행했다. 또한 1951년 통도사에 천화율원을 설립해 출가수행자를 대상으로 율학을 강수했다.

●수계의식 정비

수계의식정비와 관련한 자운 스님의 대표적인 업적은 단일계단 확립과 이부승수계(二部僧授戒) 복원이다.

단일계단법은 각 본사나 사찰별로 율사 스님들에 의해 시행되던 수계산림을 단일화해 종단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조계종 첫 단일계단 수계산림은 자운 스님을 전제사로 1981년 개최됐다. 스님은 총 12회에 걸친 단일계단의 수계산림을 통해 비구(尼)계·사미(尼)계·보살계·재가계를 정비했다.

이부승수계란 비구(尼)가 비구(尼)계단에서 계를 받고, 이어 비구(尼)계단에서 다시 계를 받는 것을 말한다. 율장에 따르면 사미(尼)는 식차(尼)니(式叉摩那)의 6계를 받고, 비구(尼)계를 배운 다음 삼사질증(三師七證)으로부터 비구(尼)계를 받고, 다시 비구(尼)의 삼사질증으로부터 인증적인 수계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비구·비구(尼)가 한자리에 구족계를 같이 받아 왔다.

이부승수계는 1986년 범어사에서 거행

된 제7회 단일계단수계산림에서 처음 시행됐다. 이로써 율장에 근거한 수계의식 절차가 완성됐다.

●지계와 참회를 근본으로 한 염불수행

자운 스님은 지계와 참회를 근본으로 한 염불수행자였다. 스님은 해인사에 출가해 팔만대장경판전에서 1만 배를 옮겼고,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1일 20시간씩 백일간 문수기도를 병행하기도 했으며, 평소 매일 수천 배씩 절을 하는 등 참회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 매일 고성염불을 10만 번씩 예참했는데, 중국의 도좌이나 선도처럼 아미타불명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미타불종자진언과 아미타불본심미묘진언 무량수여래근본다라니 등을 외우며 정진했다. 스님은 다른 불자들에게도 이같은 수행을 권했다.

자운율사는 1911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1927년 해운 스님을 은사로 남천유구 율사를 계사로 사미계를, 1934년 일봉경명(一鳳敬命)율사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만하승림(萬下勝林)-성월일전(性月一全)-일봉경명-운봉성수(雲峰性粹)-영명보제(永明普濟)-동산혜일(東山慧日)-고암상인(古庵祥彦)-석암혜수(昔岩慧秀)로 이어지는 계맥을 전수했으며, 다시 종수·일타·지관·성우·철우·정행·인홍·명성·묘연 스님에게 전했다. 1981년 조계종 단일계단 전제화상으로 추대됐으며, 동국역경원장 등을 역임했다. 계율종포와 여법한 제도 확립에 공이 커 울 중흥조라 불린다.

한국전쟁의 원인을 국민 개인의 업력이 공업으로 작용한 인과의 도로로 해석하고, 참회를 강조했다. 자운 스님은 1951년 감로사에서 자비도량참법, 문수예장 등의 참법 수행을 통한 3000배 참회 법회를 시작했다.

자비도량참법이 한국에 전래된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한국에서는 1106년 10월 고려 예종이 자비도량참법을 배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조선시대 들어서도 <상교(詳校)정본자비도량참법>이 여러 차례 간행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도 참법이 열렸음을 알 수 있다.

자운 스님은 자비도량참법 보급을 위해 참법을 소개한 서적을 여러 차례 간행·유포했다. 자비도량참법은 해인사 홍제암을 비롯해 봉암사 석남사 진관사 감로사 등에서 지금도 봉행되고 있다.

글·사진·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불교와 性' 어떻게 볼 것인가

'불교평론' 2005년 가을호

늘 신선한 담론으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불교평론>이 이번에는 '불교와 性'이라는 다소 낯선 주제를 들고 찾아왔다. <불교평론> 2005년 가을호는 '불교와 性'을 특집 주제로 다뤘다. <불교평론> 주간 조성택 교수는 권두언에서 "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국불교계의 수평풍토와 욕망을 긍정하기 시작한 근대 이후의 시대정신"이 어울려 '불음(不淫)'의 특징이 현안

'불교와 性에 대한 이해'(정성준 동국대 강사), '정신과 상담을 통해 살펴 본 불교와 性'(최훈동 한별정신병원장), '불교영화 속의 性, 어떻게 볼 것인가'(송희복 진주교대 교수), '불교미술에 나타난 性'(박영택 경기대 교수), '불교문학은 여성을 어떻게 보았는가?'(임종욱 청주대 교수) 등 6편의 논문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번 가을호에는 특집 외에도 율종과 어느 노승이 나는 대화를 통해 불교와 주자학의 철학적 만남을 읽어낸 한영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

욕망 끊기와 깨달음의 관계성 탐구

참간호~23호 CD로...구독사은품

교됐다"며 주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불음의 윤리를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출가자 본래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 있고, 전통적인 계율이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불교현대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도 타당할 수 있다"며 "불음의 문제를 더 이상 뜨거운 감자로 외면하기 보다는 구성원 내부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철저한 준수 또는 폐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집은 '율장을 통해 보는 욕망끊기'(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철우 스님), 수의 '1554년 금강산, 청년 율종과 어느 노승의 대화'를 비롯해 변화속 서울 대 강사의 '간간화선, 간화선 다시보기',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의 '고인 고통을 겪어내니 맑은 내가 있구나' 등 다양한 논문과 수필, 서평 등이 수록됐다. <불교평론>은 이번 가을호부터 현대 불교신문사가 발행한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불교평론> 창간호에서 23호까지의 모든 내용을 CD로 수록, 구독신청자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02)2004-8211

조선시대, 문중 중심 선법 확립

한국불교학회·선학회 추계학술대회 열려

불교학계의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선학회(회장 현각)와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가 각각 10월 20일(동국대)과 21일(충남대)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고려시대 선사상의 특징'에 이어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조선시대 선사상의 특징'이 주제로 다뤄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현각 스님(동국대 교수)은 조선시대 선법의 특징을 △문중 중심 △선구화(死句化)로 규정했다. 현각 스님은 조선시대의 배불정책이 선사상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했고, 그 결과 문중 중심의 문중개념 선법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평래 충남대 교수의 기조발표 '이 언덕과 저 언덕을 잇는 뚝, 여래장'으로 막을 올린 한국불교학회에서는 이만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의 '신라 원효의 <승단경소>에 관한 연구' 차승후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교수의 'Abhidharma-Samuccaya에서 말하는 12연기설', 유진 스님(동국대 교수)의 '돈황본 <단경>의 선법에 대하여' 등이 발표됐다. 박익순 기자

보조사상연구 국제 학술대회 '간화선 수행전통...' 주제로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11월 26일 서울 법원사에서 '간화선 수행전통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세계의 간화선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성배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라이운하이 중국 난징대 교수가 중국의 간화선 전통을, 니시무라 일본 하노조노대 교수가 일본의 간화선 전통을 논한다.

또 서명원 서강대 교수가 서구의 간화선을 소개하며, 미국의 간화선에 대해서는 중호 스님(동국대 선학과)이 발표를 맡는다. (02)733-5311

익산왕궁리유적 전시실 개관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송의정)는 익산왕궁리유적(사적 제408호) 전시실을 10월 18일 개관했다.

전시실에서는 익산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왕궁사(王宮寺)·대관관사(大官官)·명문(名門)·수부(首府)명 인장, 연화문 와당, 금제 영락(嬰襖), 유리구슬 등의

유물을 만날 수 있다. 익산왕궁리유적은 백제 무왕(600~641)대 조성된 궁성유적으로 석축성벽의 규모가 남북길이 490m, 동서너비 240m에 이르는 장방형 성벽으로 구획돼 있으며, 1989년부터 4차 5개년 계획으로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발굴을 통해 출토된 새로운 자료를 주기적으로 교체 전시할 예정이다.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20기 「전생요법·빙의치유」 특별강좌



상담학 박사 임재형

개강인내 11월 10일 10:00~18: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일 방송(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일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 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격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의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과관계와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사주명리학	사주 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집생계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키텐,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중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회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화 등

▶1만원을 송금하시면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최면 실천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 회장
한국지유목대학원 겸임교수
KBS 무한시대,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의대 다과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기법제 등에서 강의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전화 : (042)255-0734~5
•주소 : 대전시민회관 8층 청운빌딩 (2층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